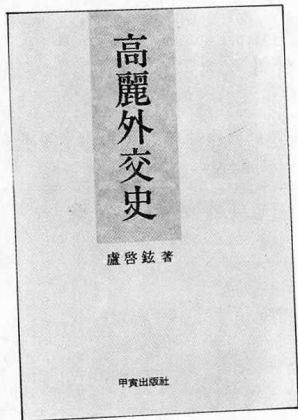


# 오백년 고려왕조의 '주권적' 대외관계사

노계현 지음 「고려외교사」



“큰 나라(중국)를 섬기되 복종하지 않았고, 스스로 낮추기는 하되 굴하지는 않았다(事而不服 卑而不屈).”

고려 태조의 3국통일에서 공양왕의 폐위까지 5백년 고려 대외관계사를 다룬 노계현 교수(방송통신대)의 「高麗外交史」는 고려의 외교사를 불복종과 불굴의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과거 외교를 사대외교라 치부하는 자기비하적 풍토에서 저자의 이 '주권의외교사'는 학계에 신선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에 대해 김명희씨(전 청주대 총장)는 “압록강 건너편으로의 우리의 영토확장 과정, 중국대륙에서 명멸한 열강들 사이에서 굳건히 지켜나간 주권외교, 특히 금·요·원 등 야만시하던 강대국과의 사침에서 보인 탁월한 외교 기교 등을 소상히 밝혀내고, 김수강·이장용·서희·정몽주 등의 훌륭한 외교관을 발굴

해낸 것은 이 저서의 두드러진 업적”이라며 “하나의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또한 저자 개인적으로는 그의 또다른 저작인 「고려영토사」 「여몽외교사」의 종합편이자 그의 고려 대외관계사 3부작의 완결편이라 할 만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고려영토사」와 「여몽외교사」를 기본으로 하여 일부를 수정·증보하여 출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교는 있었으되 외교사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근세 개국 외교사 정도일 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외교사는 거의 미미지로 남아있는 우리 학계의 실정에 「고려외교사」는 그 허전함을 많이 메꿔줄 것으로 운위되고 있다.

“태조가 고려를 세울 당시 한반도의 판도는...”으로 시작해서 “이로써 고려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끝나는 그 문장과 서술방식, 그리고 한문으로 된 원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놓은 대목은 비단 전공학자뿐 아니라 일반 독서인의 ‘답사’를 허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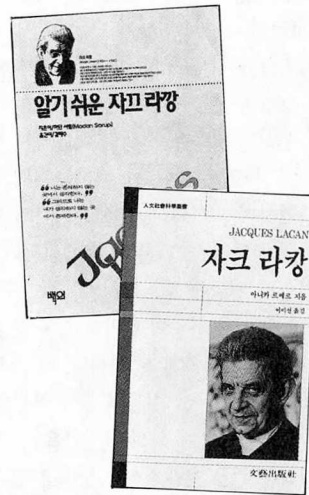
건국과 영토확장기, 대원 항쟁기, 쇠퇴기, 부흥의 시도와 멸망 등 4편 34장으로 구성됐다. 일부 장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고려태조 3국통일과 영토정착/초기의 독자적 외교정책과 영토확장/글안의 제1차 내침과 서희의 외교/문종의 대승 외교 개개와 다변외교/선·숙종 때의 송·요 동시외교/예종의 9성 구축과 영토정착/대륙정벌론의 대두와 현상유지 정책/여·몽전쟁/여·몽 왕실의 결혼외교와 그 후유증/원·명 교체기의 양면외교 외.

갑인출판사/A5신/772면/20,000원

# 원전에의 접근 이끄는 충실한 2차문헌

아니카 르메르의 「자크 라캉」 외



고전들 중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턱없이 어려운 것이 많다. 세계가, 그리고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저술도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원전보다는 창의적인 해설서나 본격적인 길잡이책을 통해 입문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술이 필요하다.

금세기 지성계 최고거장의 하나인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1901~81)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이미 유명인 것이다. 구조주의, 기호학, 해체론,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등 요즘 각광받는 이론의 자리에 빠짐없이 그의 이름이 출몰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기란 힘들다. 그러나 약간의 지적 호기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의 담론을 이해하기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는 이미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 산업'이라 회자될 만큼 세계적 스타이기 때문이다. 울초 나온 「욕망이론」(라캉 지음, 권택

영 엮음)은 현재 '4쇄씩이나' 팔렸다.

최근 출간된 「자크 라캉」과 「알기 쉬운 자크 라캉」은 그에 대한 매우 명쾌하면서도 본격적인 입문서이다. 프로이트와 소쉬르의 이론을 발전시켜 무의식을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새로이 과학화하며 정신분석의 범위를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으로 확장시킨 라캉의 세계를 참신하게 '약탈'하고 있다. 둘 모두 번역본이다. 두 길잡이책은 기본적으로 라캉의 넓은 세계를 충실하고도 쉽게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자크 라캉」은 그의 언어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알기 쉬운...」은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학문·예술적 작업·성공에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

「자크 라캉」은 출간(1970) 직후부터 라캉의 담론을 가장 훌륭하게 소개한 연구서 “아니카 르메르로부터 라캉연구를 시작하자”는 등의 평가를 받은 권위있는 입문서이다. 저자 아니카 르메르는 벨기에 루뱅대학 출신 심리학자이다. 서문을 라캉이 직접 썼다는 점은 독자에게 ‘특별 보너스’가 될 성싶다. 그는 이 책을 ‘호박(amber)’에 비유했다. 파리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파리의 날개짓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투정이다. 그래서 더 입문서에 가깝다.

「알기 쉬운 자크 라캉」의 저자는 현 캠프리지의 호머튼 칼리지 교수인 마단 사림. 라캉이 프리즘이라면 그에 의해 파생된 스펙트럼을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족: 「자크 라캉」이 올바른 표기법이 아닌지.

문예출판사/A5신/384면/8500원  
백의/A5신/276면/6500원

## 글동산 세계 명작

- 장발장
- 로미오와 줄리엣
- 톰 소여의 모험
- 시턴 동굴기
- 파브르 곤충기
- 아네의 일기
- 작은 아씨들
- 나의 라이오넬지 나무
- 닐스의 신기한 여행

## 보물섬

- 삼국지(상, 하)
- 어린 왕자
- 해저 2만 마일
- 사랑의 학교
- 탈무드
- 이십 이야기
- 오디세이아
- 갈매기의 꿈
- 아라비안 나이트(I, II)



꿈이 있는 책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 336 · 5804 333 · 9991, 2  
FAX / 333 · 9996

도서출판 글동산

- 노인과 바다
- 그리스 로마 신화
- 돈키호테

## 글동산 문고

- 이야기 한국사(I, II)
- 한국 전래 동화(상, 하)
- 어린이 명심보감
- 중국의 옛날 이야기
- 인도의 옛날 이야기
- 프랑스의 옛날 이야기

- 50가지 유명한 이야기
- 이야기 목민심서
- 이야기 세계사
- 한국의 괴담
- 세계의 괴담
- 논리 이야기

## 글동산 만화

- 만화 고사성어
- 만화 명심보감
- 만화 사자소학

- 만화 채근담
- 만화 천자문
-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 만화 김삿갓
- 만화 주덕
- 만화 일리아드
- 만화 오디세이아
- 만화 임궽정
- 만화 홍길동
- 만화 박문수

# 오페라예술의 매혹 풀어쓴 걸작에의 헌사

이덕희 지음 「세기의 걸작 오페라를 찾아서」



오페라는 음악의 여러 장르 중 우리에게 가장 낯설다. 물론, 다른 어떤 장르보다 그것에 깊이 매료되어 LD를 사모은다, 더 큰 스크린을 구입한다며 부산떠는 매니아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정하긴 무리겠으나 오류를 무릅쓰고 굳이 통념의 잣대를 들이대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음악가와 연인들」「베토벤 이야기」「쇼팽-하늘로 가는 피아노소리」 등 술한 음악 및 공연 예술분야의 저술과 편저·역저의 저자로 유명한 이덕희씨가 이번에는 출판된 중수 역사나 가장 부실한 부문인 오페라에 관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을 「오페라 예술에 바쳐진 헌사」로 표현하는 저자는, “일찌기 오페라에 매혹되어 그 마법의 세계에서 가지가지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이 책에서 그 마력의 비밀을 다소나마 밝혀내어 아직 그 위대한 경이에 접해보지 못

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오페라라는 마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더할 수 없이 기쁘겠다”며 입이 마르도록 상찬한다.

세대를 뛰어넘어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된 「돈 조반니」를 비롯, 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마술피리」,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 13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랑과 태양과 죽음의 비극 「카르멘」, 바그너가 반생을 바쳐 만들었다는 「파르지팔」, 오페라의 가장 푸치니의 창조력의 절정 「투란도트」 등등 이 책에는 400년여의 오페라 역사에서 ‘걸작’으로 손꼽히는 14편을 선정, 진귀한 화보와 상세한 내용해설, 작곡배경 및 공연에 얽힌 뒷얘기까지 다양한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오페라의 초기 역사는 지금과는 달리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고 한다. 특정한 장소와 행사를 위해 작곡가에게 위촉된 무대음악으로 처음엔 궁정공연을 위한 순전히 임시적인 작품이었다. 18세기에 와서도 오페라는 여전히 그런 기능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오페라 작품에 대해 작곡가가 영구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낭만주의시대부터였으며 바그너에 이르러서야 오페라의 인기는 정점에 달한다.

저자는 이 ‘걸작’들에 대한 예술적 평가와 음악사적 의의 등을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기 위해 당대의 기록과 자료를 포함해서 잡지류를 빼고도 1백권이 넘는 오페라 관계 원전을 참조했다고 한다.

예하/A5신/340면/7500원

# 의학지식 대중화 표방한 실용적 안내서

홍문화 지음 「건강을 위한 생활속의 금기」 외



일반의보다 전문가가 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사병에나 쓰이는 링게르를 피로회복제로 알고 있는 사람, 내복약보다 주사가 즉방이라고 믿는 사람. 의료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직의사들은 이들에게 던지는 말. “똑바로 아는 것이 질병을 고친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 싸워온 역사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첨단의료기기와 약품들은 20세기 천형으로 불리는 에이즈 정복의 희망까지 갖게 한다. 하지만 의학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인식은 너무나 판이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그릇된 자가진단과 약물의 오남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의학에 걸맞는 의학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엮은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 100」은 21개 항목에 걸친 ‘의학상식의 허구를 날달이’ 들춰낸다.

예를들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는 설도 그렇다. 이 책에 의하면 정상혈압을 120/80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 위험한 것은 심한 출혈 등 다른 뚜렷한 원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저혈압일 뿐이라고 한다. 오히려 만성저혈압의 경우 동맥경화의 진행속도가 늦어 평균수명이 10년 더 길다는 보고도 있다고 한다.

한편 홍문화박사(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건강을 위한 생활 속의 금기」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독자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책이다.

홍박사는 “대부분의 병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습관에서 생긴다”면서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라고 권유한다.

몸에 좋다면 모두가 먹는 음식도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영·유아기부터 중·노년까지 연령별 금기사항을 살펴보고, 이밖에 결혼 및 성생활, 음식을 먹을 때, 질병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 등 각각의 경우에 금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건강유지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첫째는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병이 나면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적절한 처방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견 정말 ‘제대로 알려진 상식’이다.

한울/B5변형/212면/6000원

두로/A5신/222면/5000원

국내

최초로

번역된

완역본

혜원 — 67  
세계 문학

## 아에네이스

「아에네이스의 노래」라는 뜻의 이 작품은 로마 최대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로마의 건국 서사시이다.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 시조인 아에네이스가 트로이 멸망 후 로마의 터전을 찾아가기까지의 고난과 사건, 사랑 등을 다룬 미완성 작품이다. 그리고 농촌 생활에 대한 찬가라 할 수 있는 《전원교향시》가 함께 수록되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333·9991

혜원 세계 문학 69

# 세계의 신화 전집

· 하시미 편 ·

● 혜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신화나 전설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신화나 전설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 세계와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 게르만, 슬라브,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마야·아즈텍·잉카 등의 신화 전설이 소개되고 있다.